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조진만 최준영 가상준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단국대학교

◆ 논문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학계의 논쟁이 중간평가 모델, 선거운동 모델, 투표율 모델로 대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지지율,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소비자태도지수), 선거구 특성(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를 고려한 선거구 경합도), 선거상황(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조 여부), 투표율 차이(이전 총선 투표율 - 재·보궐선거 투표율)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통합적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독립변수들이 한국의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당락 여부를 결정짓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도 산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를 평가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구 특성이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선거시점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를 고려할 때 여당에게 유리한 비경합적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여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사례들(70.7%)이 포함되어 있는 여당과 야당의 경합선거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변화됨에 따라 여당 후보의 당선 확률도 현격하게 변화되는 특징을 보여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운 경쟁적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선거시점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 주제어: 한국, 재선거, 보궐선거,
대통령 지지율, 지역주의, 중간평가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이하 한국의

*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지적과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보궐선거)¹⁾를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밝혀 내는데 있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단순히 지역선거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상호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Feigert and Norris 1990; Norris 1990; King 1988; Mughan 1988; 1986; Kay 1981; Boston 1980; Cook and Ramsden 1973; Butler 1949; Lewis 1943; Pollock 1941; Sparks 1940).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보궐선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이하 대선)나 총선거(이하 총선)와 비교하여 정치적인 비중과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연구대상으로 별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간평가(*referendum*) 모델, 선거운동(*campaign-specific*) 모델, 그리고 투표율(*turnout*) 모델로 대별되는 재·보궐선거 모델들의 주요 주장들과 한국적 정치상황을 고려한 통합적 연구모델을 구성하여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간평가 모델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소비자태도지수)를, 선거운동 모델에 대해서는 선거구 특성(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를 고려한 선거구 경합도)과 선거 상황(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조 여부)을, 그리고 투표율 모델에 대해서는 총선과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차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통합적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변수들이 한국의 재·보궐선거에서 여당²⁾ 후보의 당락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도 산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권부터 현 노무현 정권까지 실시된 총 58회의 재·보궐선거⁴⁾를 대상으로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범위를 민

1) 재·보궐선거는 실시되는 사유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다시 총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처럼 양 선거를 동일한 차원에서 분석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외국의 경우 주로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이유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드물고, 충분한 수의 보궐선거 사례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 본 연구에서 여당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당은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당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제 하에서의 여당과 내각제 하에서의 집권당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3) 본 연구의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당락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락 여부가 선거결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당 후보의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분석상의 문제가 있다. 우선 재·보궐선거에서 각 선거구마다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득표율이 일률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전 총선과 비교하여 여당 후보의 득표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주목하더라도 그 차이가 출마자수 등과 같은 선거경쟁구도의 변화로 인하여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자들은 득표율에 대한 분석이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4) 실제로 연구시기에 총 62회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1998년 7월 21일 강원 강릉시(乙)에서 실시된

주화 이후의 시기로 제한한 이유는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한국에서 실시된 선거들의 경우 집권 세력이 법과 제도를 악용함에 따라, 그리고 각종 부정·금권·조직선거가 만연함에 따라 절차적 정의를 전제로 한 선거연구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여론조사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⁵⁾는 점도 고려하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의 정립

영국의 경우 1989년 2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보수당이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재·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은 항상 고전하는 특징을 보인다. 영국에서 재·보궐선거는 집권당이 불리한 지역에서만 실시되지는 않는다. 또한 주요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비교적 확연히 구분되고 제도화의 수준이 높아 안정적인 정당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랜 사회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정당일체감으로 인하여 급격한 정치·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입장이 단기간에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선거진동성(*electoral volatility*)⁶⁾이 총선의 그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며, 집권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하락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은 학계의 관심을 끌게 하였다(Norris 1990).

이와 같은 재·보궐선거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중간평가 모델, 선거운동 모델, 그리고 투표율 모델이 제시되었다. 먼저 중간평가 모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부의 정책과 업적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회고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King 1988; Mughan 1988; 1986; Studlar and Sigelman 1987; Kay 1981; Boston 1980; Butler 1949; Lewis 1943).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중간평가 모델은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선거시점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지표가 된다고 주장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중간평가 모델의 주요 주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과 같은 내각제

재선거, 2002년 12월 19일 울산 중구에서 실시된 보궐선거, 그리고 2003년 4월 2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甲)에서 실시된 재선거의 경우 여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1998년 1월 6일 광주 동구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김용욱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여 새천년국민회의 이영일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5) 한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정기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1993년부터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경우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 시기에 실시된 다섯 번의 재·보궐선거는 자료 접근의 문제로 인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 6) 선거진동성은 비교대상이 되는 두 선거에서 정당들의 득표율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한 후, 이들을 모두 합하여 둘로 나누어 산출한다(Pedersen 1979). 선거진동성은 비교대상이 양 선거의 거시적 변화를 파악하고 정당체계의 제도화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국가에서 총선은 정부를 구성할 정당을 선택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집권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업무수행에 일정 수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적 비중이 큰 총선에서는 자신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의 경우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또는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감수해야 할 비용⁷⁾이 재·보궐선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Buchanan and Tullock 1962; 강원택 2004). 즉 총선과 비교하여 정치적 효과나 파장이 크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집권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심리적 부담감에서 일정 수준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과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을 지지 철회 또는 기권을 통한 직·간접적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 재·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의 득표율이 이전 총선과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집권 초기 기대심리 및 단기적인 성과로 인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상승하였다가 이후 기대심리의 미충족과 정부의 실정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특징⁸⁾을 보이게 된다(Waterman et al. 1999; Ostrom and Simon 1985; Sigelman and Knight 1985; 1983; Norpoth 1984; Stray and Silver 1983; Kernell 1978; Stimson 1976; Mueller 1970; 조진만 2005; 1998a; 1998b; 진영재·조진만 2002). 그러므로 재·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의 후보들이 고전하고 낙선하는 이유는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시점에서 대부분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이에 유권자들이 회고적인 투표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⁹⁾

본 연구는 중간평가 모델이 한국의 재·보궐선거 결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얼마나 유용한가를 적실성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라는 두 변수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하여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을 보인다(Mackuen 1983; Kernell 1977; Pierson 1975; Mueller 1970; 조진만 2005; 진영재·조진만 2002; 함성득 1999, 271-301).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로 나

7) 뷰캐넌과 톨러는 이를 '외부비용' (external cost)의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부비용이란 자신의 의사와 상이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8) 물론 이 과정에서 집권 말기 차기 선거를 의식한 정부의 각종 선심정책(Tufte 1978; Nordhouse 1975)으로 인하여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회복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집권 초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간주할 수 있다.

9) 미국의 경우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하는 특징을 보이는 이유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되고, 이에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을 회고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투표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Erikson 1988; Abramowitz et al. 1986; Abramowitz 1985; Campbell 1985; Kernell 1977; Pierson 1975; Tufte 1975; Kramer 1971; Hinckley 1967).

타나게 된다(가상준 2005). 이 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각종 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Campbell 1993; Lewis-Beck and Rice 1984; 1982; Shapiro and Conforto 1980; 가상준 2005). 즉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시점에서 선거가 실시될 경우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재·보궐선거는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이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현 정부의 중간평가 내지는 심판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특징을 보였다(신두철 2005; 조진만 2005; 1998a; 1998b)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가설 1: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둘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의 경우 선거시점의 경제상황은 가변적이며, 이것이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평가 모델의 적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당일체감과 같은 투표결정 준거들은 단기간에 변화되지 않는다(Campbell et al. 1960; Berelson et al. 1954; Lazarsfeld et al. 1948). 그러므로 총선과 비교하여 재·보궐선거에서 선거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정당일체감 이외의 다른 요인이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은 선거시점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투표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Nadeau and Lewis-Beck 2002; Lockerbie 1991; Erikson 1989; Lewis-Beck 1988; Markus 1988; Hibbs 1987; Abramowitz 1985; Kiewiet 1983; 1981; Fiorina 1978; Hobbing and Alford 1981; Kuklinski and West 1981; Kinder and Kiewiet 1979; Bloom and Price 1975; Tufte 1975; Kramer 1971; 황아란 2000; 이현우 1999; 1998; 1996)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⁰⁾ 즉 유권자들이 선거시점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정부에 대한 보상(reward)의 차원에서, 그리고 향후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권자들이 선거시점의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정부에 대한 처벌(punishment)의 차원에서, 그리고 향후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불신의 표현으로

10) 경제투표 모델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국가적 경제상황과 개인적 경제상황 중 어느 것을 더 고려하여 투표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회고적 평가와 전망적 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여 투표결정을 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학계의 논쟁점으로 남아 있다(Lanoue 1994; Markus 1988; Kinder and Kiewiet 1979). 하지만 국가적 경제상황과 개인적 경제상황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망적 평가도 회고적 평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Downs 1957; 황아란 2000)는 측면에서 유권자들은 이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결정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경제투표 유형을 분류하여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기보다는 선거시점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경우 여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관점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정립하고 있다.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연구가설 2: “경제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다음으로 중간투표 모델과 상반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선거운동 모델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정당조직 우열 및 선거전략 등과 같은 지역선거적 특성이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주장한다(Norris 1990; Cook and Ramsden 1973; Pollack 1941; Sparks 1940). 즉 선거운동 모델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적인 선거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선거결과가 갖는 정치적 파장도 크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정당일체감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주로 지역선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투표결정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선거운동 모델은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선거시점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한다고 간주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선거운동 모델의 적실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를 설정하고 조작화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후보자의 이미지와 경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나 정당의 선거전략 우열 등과 같은 선거운동 모델에서 설정하고 있는 변수들을 집합자료를 활용하여 측정 가능한 변수로 설득력 있게 조작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운동 모델과 관련하여 한국의 재·보궐선거는 중앙정치의 쟁점들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여당과 야당이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총력전’ 내지 ‘대리전’의 양상이 전개되는 특징¹¹⁾을 보였다(조진만 2005; 1998a; 1998b)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의 재·보궐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의 선거전략과 선거운동 방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후보자 개인적 차원의 평가와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한국의 재·보궐선거에 대한 선거운동 모델의 적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차원의 변수와 정당의 선거전략 차이와 같은 변수들을 설정하기보다는 다른 변수들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특성을 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를 고려한 선거구 경합도로,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시점의 선거상황을 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조 여부로 조작화하여 선거운동 모델이 한국의 재·보궐선거 결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얼마나 유용한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선거구 특성과 관련하여 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를 동시에 고려한 선거

11) 예를 들어 김대중 정권 시기인 2001년 10월 25일 서울 구로구(乙)에서 실시된 재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여야 국회의원은 전체 270명의 88.1%인 238명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하여 민주당 이만섭 국회의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 경합도를 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이것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정당조직과 정치적 판세의 우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¹²⁾ 민주화 이후 영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주의는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이갑운 2002; 강명세 2001; 박상훈 2001; 양재인 2001; 이남영 1999; 1998; 최한수 1995; 박찬욱 1993). 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권 시기 강도 높은 개혁과 사정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지역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여당 지역 정서(TK정서), 김종필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의 탈당과 자유민주연합의 창당, 그리고 이후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를 놓고 출현한 충청지역의 소지역주의, 15대 대선을 전후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사이에 진행되었던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의 지역연합(선거공조와 공동정부), 정치적 거물의 지역적 연고와 관련하여 출현하게 된 특정 선거구에서의 지역연고주의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주의들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 지역주의는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을 중심축으로 형성되었지만 시기별로 다채로운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선거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연구가설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한(또는 불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유권자들은 중간평가 모델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업무수행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같은 중앙정치의 쟁점들을 고려하여 투표결정을 하기보다는 선거구의 지역적 정서를 고려한 투표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즉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해도, 그리고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이어도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로 인하여 여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면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해도, 그리고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어도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로 인하여 여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재·보궐선거의 경우 총선과 총선 사이의 시기에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여당이 다시 승리할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이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선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선거구라는 것

12) 본 연구에서 선거구 특성과 관련하여 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에 대한 가변수들을 설정하지 않고 선거구 경합도라는 하나의 서열변수를 설정·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연구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수의 독립변수를 설정할 경우 통계결과의 신뢰도(t-검정 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경우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을 좀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여당 후보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을 산출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를 각각 가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할 경우 이와 같은 확률을 산출할 수 없었다. 넷째, 지역주의 존재 여부(여당 유리지역과 불리지역)와 여당의 현직 여부를 각각 가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해본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을 의미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큰 정치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다시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연구가설 3: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고 이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선거구(여당 불리 비경합적 선거구)에서 여당(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역주의가 존재해도 이전 총선에서 여당(야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 선거구(여야 경합적 선거구), 그리고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고 이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선거구(여당 유리 비경합적 선거구)로 갈수록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둘째, 선거상황과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조 여부는 선거과정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재·보궐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조가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김영삼 정권 말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소위 ‘DJP 연합’이라는 야권 공조를 통하여 19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었으며, 2001년 9월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이전까지 공동정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야권 공조와 공동정부라는 기조 하에 단일후보를 내세워 선거공조를 도모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 때 일반적인 차원에서 선거상황이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선거공조를 하였을 경우 야당이 선거공조를 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연구가설 4: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선거공조를 하였을 경우에는 여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 반면 야당이 선거공조를 하였을 경우에는 여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낮다.”

마지막으로 투표율 모델의 경우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이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되었으며, 재·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기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권당의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고전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주장에 그 핵심이 있다(King 1968; Boston 1980; Mughan 1988; 1986). 이 주장은 투표율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상승-하락(Surge and Decline) 이론(Campbell 1993; 1987; Born 1990; Cover 1985; Campbell 1960)과도 일맥상통한다.¹³⁾

13)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여당의 의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이론적으로 전체 유권자는 크게 정치적 관심이 높고 거의 대부분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자들’(voters)과 정치적 관심이 낮고 대부분 선거에 불참하는 ‘기권자들’(abstainers)로 양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투표자들은 세부적으로 확고한 지지정당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치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항상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핵심적’(core) 투표자들과 지지정당은 있지만 집권 가능성과 정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바꿀 수도 있는 ‘전략적’(tactical) 투표자들, 그리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선거시점의 정치상황에 따라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부동적’(floating) 투표자들로 분류할 수 있다(Norris 1990, 198-213). 이 때 투표율 모델은 핵심적 투표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총선과 달리 정치적 중요성과 비중이 떨어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기권을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투표율 모델은 재·보궐선거가 주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낮은 시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집권당을 지지하는 핵심적 투표자들이 기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을수록 집권당에게 불리한 선거결과를 이끌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투표율 모델이 한국의 재·보궐선거 결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얼마나 적실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정립하기에 앞서 다음의 한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표율 모델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을수록 여당 후보의 득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선거구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투표율이 차이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만을 가지고 투표율 모델의 적실성을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보다 타당성 있게 투표율 모델의 적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전 총선의 투표율과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의 차이를 산출하여 그 차이가 클수록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기권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여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점에서 연구가설을 정립하고 있다.

· 연구가설 5: “이전 총선 투표율과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큰 차이를 보일수록 여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낮다.”

요인들 중 하나로 투표율이 지적된다. 중간선거의 경우 대선과 비교하여 정치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략 10%~15% 정도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게 된다. 이 때 중간선거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은 주로 과거 대선에서 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며, 이들의 기권이 결국 여당의 의석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Ⅲ. 연구모델과 결과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재·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작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종속변수인 V_1 은 가변수로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승리 여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V_1 을 특정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하였을 경우에는 1로, 그리고 야당 후보가 승리한 경우에는 0으로 조작화하였다.

$$\begin{aligned} \text{모델 1: } V_1 = & \alpha + \beta_1 * \text{대통령 지지율} + \beta_2 * \text{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소비자태도지수)} + \beta_3 * \text{선거} \\ & \text{구 특성(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를 고려한 선거구 경합도)} \\ & + \beta_4 * \text{선거상황(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조 여부)} + \beta_5 * \text{투표율 차이(총선 투표} \\ & \text{율 - 재·보궐선거 투표율)} + \varepsilon \end{aligned}$$

다음으로 독립변수의 경우 첫째,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월별 단위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 ○님께서도 현재 ○ ○ ○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긍정적 대답을 한 응답자의 백분율로 산출되었다.

둘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삼성경제연구소가 1991년부터 매 분기별로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를 활용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는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 미래경기예상지수, 내구재구입태도지수의 다섯 가지 경제지수들을 종합하여 산출한 지수로서 유권자들의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 그리고 회고적 차원과 전망적 차원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태도지수는 미국과 일본 등 20여개 선진국에서 경기의 흐름과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태도지수는 기준값이 5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값이 기준값을 상회할 경우 유권자들의 현재와 향후의 경기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선거구 특성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며 이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선거구는 ‘여당 불리 비경합적 선거구’로 규정하고 1로, 여당(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역주의가 존재해도 이전 총선에서 여당(야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 선거구는 ‘여야 경합적 선거구’로 규정하고 2로, 그리고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고 이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선거구는 ‘여당 유리 비경합적 선거구’로 규정하고 3으로 조작화하였다. 지역주의의 다양한 측면과 변화 양상 등을 고려하여 좀더 구체적으

로 본 연구에서 연구사례들을 분류한 기준들을 제시하면 먼저 김영삼 정권 시기 호남지역¹⁴⁾, 김대중 정권 시기 영남지역, 노무현 정권 시기 영남지역¹⁵⁾은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권 시기 부산지역과 경남지역,¹⁶⁾ 김대중 정권 시기 호남지역¹⁷⁾은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분류하였다.¹⁸⁾ 그리고 이밖의 지역은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재·보궐선거 선거구 특성 분류기준표

현직 \ 지역주의	여당 불리 지역주의	지역주의 없음	여당 유리 지역주의
야당 현직	1	2	2
여당 현직	2	2	3

※ 1=여당 불리 비경합적 선거구, 2=여야 경합적 선거구, 3=여당 유리 비경합적 선거구

- 14) 김영삼 정권 말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지역연합적 선거공조가 진행되어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충청 지역에서도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주의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실시된 충남 예산시 재선거의 경우 이 지역출신인 이회창 후보가 경선을 통하여 여당의 대통령후보로 당선된 직후에 실시되어 여당에게도 유리한 지역적 연고주의(hometown regionalism)가 구축됨으로써 매우 경쟁적인 선거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예산시 재선거의 경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야 경합적 선거구로 분류하였다.
- 15) 노무현 정권 시기 영남지역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연고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상황들을 고려할 때 노무현 정권 시기 영남지역은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것이 보다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본 연구의 경우 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여당의 현직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선거구 특성을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분류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16) 김영삼 정권 시기 대구지역과 경북지역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초기 공직자 재산공개, 공직자윤리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금융실명제 실시 등 강도 높은 개혁과 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소위 TK정서라는 반여당 정서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재·보궐선거 실시되어 여당이 전통적인 지역적 지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선거구도가 전개되었다(조진만 1998a, 91-11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거구를 여야 경합적 선거구로 분류하였다.
- 17) 김대중 정권의 경우 여권의 공조가 파기되기 이전까지 충청지역은 공동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였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사례들 중 이 시기 충청지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없었다.
- 18) 노무현 정권의 경우 17대 총선을 기점으로 여권이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리되었고, 열린우리당이 전 국정당의 가치를 중요하게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 시기 호남지역의 지역주의를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이 시기 호남지역은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여당의 현직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선거구 특성을 분류하는 것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사례들 중 이 시기 호남지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문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노무현 정권 시기 충청지역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의 쟁점으로 인하여 여당에게 유리한 소지역주의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시기 충청지역에서 실시된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연기군 재선거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불만, 공주 출신 심대평 충남지사의 중부권 통합신당 창당 움직임, 여당의 후보자 공천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전반적으로 여당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거구를 여야 경합적 선거구로 분류하였다.

넷째, 선거상황은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단일후보를 내세워 선거공조를 하였을 경우에는 1로, 여당과 야당 모두 각각 개별후보를 내세워 선거공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로, 그리고 여당이 단일후보를 내세워 선거공조를 하였을 경우에는 3으로 조작화하였다.

다섯째, 투표율 차이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이전 총선 투표율에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뺀 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보다 정확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하여 총선과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일정 수준 차이를 보인 경우 그 대상을 통일시켜 투표율을 산출하였다.

아래의 <표 2>는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일단 연구결과 카이제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본 연구의 모델이 적합도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모델은 한국의 재·보궐선거 결과—여당 후보의 당락 여부—를 설명함에 있어 84.5%의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결과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구 특성이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즉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선거시점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를 고려한 선거구 특성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록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선거상황, 그리고 투표율 차이는 한국의 재·보궐선거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회귀계수(표준오차)	Exp(β)
대통령 지지율	0.059(0.027)*	1.061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0.009(0.057)	0.991
선거구 특성	3.708(1.384)**	40.788
선거상황	0.204(1.034)	1.226
투표율 차이	-0.065(0.055)	0.937
상수	-10.507(4.132)*	
카이제곱	23.347(유의확률=0.000)	
-2로그우도	42.959	
사례수	58	
적중률	84.5%	

*: $p < 0.05$, **: $p < 0.01$

19) 본 연구의 경우 58회의 재·보궐선거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사례수 부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함으로써 사례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붓스트랩(Bootstrap) 방식을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붓스트랩을 활용한 연구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붓스트랩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무니와 듀발(Mooney and Duval 1993)의 저서를 참조하시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의 재·보궐선거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 중간평가 모델과 선거운동 모델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즉 한국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이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현 정부의 중간평가 내지는 심판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과정의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과 지역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거구 특성이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text{Prob}(y = 1) = \frac{e^{-10.507 + 0.059 \cdot (\text{대통령 지지율}) + 3.708 \cdot (\text{선거구 특성})}}{1 + e^{-10.507 + 0.059 \cdot (\text{대통령 지지율}) + 3.708 \cdot (\text{선거구 특성})}}$$

다음의 <표 3>은 좀더 세부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재·보궐선거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구 특성이 변화됨에 따라 여당 후보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위의 공식²⁰⁾을 토대로 산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지역주의의 효과로 인하여 여당이 유리한 또는 불리한 비경합적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통령 지지율이 20.0%로 매우 낮아도 여당에게 유리한 비경합적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85.8%에 이른다. 반면 대통령 지지율이 80.0%로 매우 높아도 여당에게 불리한 비경합적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11.1%에 불과하다. 이것은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결과를 선거시점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중요한 정치적 지표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점, 다시 말해 중간평가 모델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대다수의 연구사례(70.7%)가 포함되어 있는 여야 경합적 선거구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변화됨에 따라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유권자들은 중앙정치의 전반적인 흐름과 동향에 영향을 받아 투표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그 결과는 선거시점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중요한 정치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표 3>의 결과는 지역주의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재·보궐선거 결과가 집권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차원에서 결정되었는지 또는 선거구 특성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대다수의 재·보궐선거가 중간평가 차원이 중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야 경합적 선거구에서 실시되었고, 여당 유리 비경합적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단지 네 건(6.9%)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여당이 재·보궐선거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20)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서 확률을 구하는 자세한 방식은 리아오(Liao 1994)의 저서를 참조하시오.

있다.

〈표 3〉 한국의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

선거구 특성 \ 대통령 지지율	20	30	40	50	60	70	80
여당 유리 비경합적 선거구 (사례수=4, 6.9%)	85.8	91.6	95.2	97.3	98.5	99.1	99.5
여야 경합적 선거구 (사례수=41, 70.7%)	12.9	21.1	32.5	46.5	61.0	73.9	83.6
여당 불리 비경합적 선거구 (사례수=13, 22.4%)	0.4	0.7	1.2	2.1	3.7	6.5	11.1

실제로 개별적인 연구사례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 집권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김영삼 정권의 경우 집권 초기 김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정치자금법 개정, 군 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등과 같은 강도 높은 개혁과 사정을 추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던 시기(1993년, 대통령 지지율=70.0%~82.4%)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집중적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경우에도 집권 이후 사회적 합의에 토대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여주었던 다각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단기간 지속되었던 시기(1998년~1999년, 대통령 지지율=75.6%~78.8%)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었다.²¹⁾

하지만 이와 같은 집권 초기 대통령의 밀월기간(honeymoon period)을 제외한 시점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권의 경우 집권 중기로 접어들면서 개혁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의 상실과 정치보복적 사정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집권 말기에는 노동법과 안기부법 여당 단독 가결, 한보 사태와 기아사태, 외환위기와 주식파동, IMF 구제금융 신청과 실업사태 등으로 인하여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이 전개되었다(1997년, 대통령 지지도=16.7%~22.1%). 그리고 이 시기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충남 예산시 재선거²²⁾를 제외하고 여당이 모두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

21) 김대중 정권의 경우 집권 초기 75.8%의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하였던 시기(1998년 4월 2일)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재·보궐선거는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부산·대구·경북 지역에서 실시되어 모두 야당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22)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충남 예산시 재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승리한 이유는 재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인 1997년 7월 21일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자 경선에서 이 지역출신인 이회창 후보자가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즉 충남 예산시 재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이 김영삼 정권에 대한 심판보다는 새로운 여당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지역연고성에 기반한 투표행태를 보여 여당이 승리한 이례적인 선거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김대중 정권의 경우에도 집권 중기와 말기로 접어들면서 옷로비 사건,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 논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복사정에 대한 비판,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이적 파문, 대우자동차 노조 과잉 진압, 이용호 게이트 등과 같은 부적절한 정치적 대응과 권력형 비리가 속출함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다(2001년~2002년, 대통령 지지율 = 36.4%~39.0%). 그러므로 이 시기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경우 광주 북구(甲)와 전북 군산시의 보궐선거만이 지역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당이 승리하였을 뿐 나머지 재·보궐선거에서는 모두 여당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현 노무현 정권 역시 집권 초기부터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는 초유의 상태가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재·보궐선거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시점(2005년, 대통령 지지율 = 28.5%~47.9%)에 실시되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재·보궐선거에서도 여당이 승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및 함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중간평가 모델, 선거운동 모델, 투표율 모델로 대별되는 재·보궐선거 모델의 주요 주장들과 한국적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적 연구모델을 구성한 후 한국에서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경험적으로 밝혀보았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구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선거시점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를 고려한 선거구 특성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록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의 재·보궐선거는 중간평가적인 성격과 지역선거적인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며, 이로 인하여 중간평가 모델과 선거운동 모델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한국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이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현 정부의 중간평가 내지는 심판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과정의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지역주의의 영향력을 초월하여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다수의 연구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여야 경합적 선거구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변화됨에 따라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도 현격하게 변화되는 특징을 보여 지역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유권자들은 중앙정치의 전반적인 흐름과 동향에 영향을 받아 투표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그 결과를 선거시점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중요한 정치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본 연구의 경우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놓고 학계의 논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줄 만한 비교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재·보궐선거의 모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구 특성이 변화됨에 따라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경우 기본적으로 집합자료를 토대로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에서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선거구 차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권자 개인의 수준에서 투표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각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재·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권자들은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준거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여 투표결정을 하는지, 총선과 재·보궐선거의 지지 정당이 달랐던 또는 투표 참여 여부에 차이를 보였던 유권자들은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선거구 차원의 쟁점과 중앙정치의 쟁점 중 어느 것을 더 고려하여 투표결정을 하는지 등의 문제들을 개별선거구 차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밝혀낼 때 한국에서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좀더 적실성 있게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는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평가가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구현될 수 있다. 하지만 대선과 같은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회고적 평가뿐만 아니라 전망적 평가를 고려하여 투표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이 단임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여도 여당의 차기 대통령후보가 이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선거전략을 동원할 경우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역(거주지), 종교, 소득, 교육 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정당일체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 역시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임정치의 구현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과 중요성이 떨어지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이 선거결과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재·보궐선거가 책임정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재·보궐선거를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선거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결과에 나타난 민심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참 고 문 헌〉

- 가상준. 2005. “대통령 지지율과 2004년 대통령선거: 1952-2000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153-174.
- 강명세. 2001. “지역주의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역대 대통령선거를 기반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7권 2호, 127-158.
- 강원택. 2004. “한국에서 보궐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의미.” 『의정연구』 제10권 1호, 145-166.
- 박상훈. 2001.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제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113-134.
- 박찬욱. 1993.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 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신두철. 2005. “한국 재·보궐선거 캠페인의 특징과 정책선거 실현방안.”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 73-93.
- 양재인. 2001. “한국의 선거와 투표행태: 지역주의가 표출된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7권 1호, 1-33.
- 이갑윤. 2002.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2호, 155-178.
- 이남영. 1999. “1998년 지방선거와 지역주의: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비교의 관점에서.”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이남영. 1998. “유권자의 지역주의 성향과 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이현우. 1999. “미국의 개인적 경제투표에 관한 재검토: 잠재변수를 이용한 구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2호, 241-257.
-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이현우. 1996. “경제문제와 정당선택: 미국의 경우, 1960-1992.”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4호, 343-362.
- 조진만. 2005.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 95-122.
- 조진만. 1998a. “한국에 있어서 非주기적 지역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 김영삼 정권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진만. 1998b. “집권정부의 정치적 지지도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김영삼 정권기를 중심으로.” 『東西研究』 제10권 1호, 159-198.
- 진영재·조진만. 2002.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 제시와 사례 분석:

-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1호, 185-202.
- 최한수. 1995. “6·27 지방선거의 평가: 정당지지 및 지역주의 실태.”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3호, 141-161.
- 함성득. 1999. 『대통령학』. 서울: 나남출판.
- 황아란. 2000. “경제투표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접근: 제15대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2호, 193-212.
- Abramowitz, Alan I. 1985. “Economic Conditions, Presidential Popularity, and Voting Behavior in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47, 31-43.
- Abramowitz, Alan I., Albert D. Cover, and Helmut Norpoth. 1986. “The President’s Party in Midterm Elections: Going from Bad to Wors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 562-576.
- Berelson, Bernard, Paul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Bloom, Howard S. and Douglas Price. 1975. “Voter Response to Short-run Economic Conditions: The Asymmetric Effect of Prosperity and Recess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 1240-1254.
- Born, Richard. 1990. “Surge and Decline, Negative Voting, and the Midterm Loss Phenomenon: A Simultaneous Choic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615-645.
- Boston, Jonathan. 1980. “By-Elections in New Zealand: An Overview.” *Political Science* 32, 103-127.
- Buchanan, James and Gordon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Press.
- Butler, David. 1949. “Trends in British By-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11, 396-407.
- Campbell, Angus. 1960. “Surge and Decline: A Study of Electoral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4, 397-418.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 Campbell, James E. 1993. *The Presidential Pulse of Congressional Elections*. Lexington: Kentucky University Press.
- Campbell, James E. 1987. “The Revised Theory of Surge and Declin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 965-979.
- Campbell, James E. 1985. “Explaining Presidential Losses in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47, 1140-1157.
- Cook, Chris and John Ramsden. eds. 1973. *By-Elections in British Politics*. London: Macmillan Press.
- Cover, Albert D. 1985. “Surge and Decline in Congressional Elections.”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8, 606-619.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Erikson, Robert S. 1989. "Economic Conditions and the Presidential Vo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567-573.
- Erikson, Robert S. 1988. "The Puzzle of Midterm Loss." *Journal of Politics* 50, 1011-1029.
- Feigert, Frank B. and Pippa Norris. 1990. "Do By-Elections Constitute Referenda?: A Four-Country Compariso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5, 183-200.
- Fiorina, Morris P. 1978. "Economic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A Micro-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 426-443.
- Hobbing, John R. and John R. Alford. 1981. "The Electoral Impact of Economic Conditions: Who is Held Responsibl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 423-439.
- Hibbs, Douglas A. Jr. 1987.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inckley, Barbara. 1967. "Interpreting House Midterm Elections: Toward a Measurement of the In-Party's 'Expected' Loss of Sea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 691-700.
- Kay, Barry J. 1981. "By-Elections as Indicators of Canadian Voting."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4, 37-52.
- Kernell, Samuel. 1978. "Explaining Presidential Popula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 506-522.
- Kernell, Samuel. 1977. "Presidential Popularity and Negative Voting: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Midterm Congressional Decline of the President's Par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44-66.
- Kiewiet, Roderick D. 1983. *Macroeconomics and Micropolitics: The Electoral Effects of Economic Issue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Kiewiet, Roderick D. 1981. "Policy-Oriented Voting in Response to Economic Issu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 448-459.
- Kinder, Donald R. and Roderick D. Kiewiet. 1979. "Economic Discontent and Political Behavior: The Role of Personal Grievances and Collective Economic Judgments in Congressional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 495-527.
- King, Anthony. 1988. "Why All Governments Lose By-Elections." *New Society* 11, 413-415.
- Kramer, Gerald. 1971. "Short-term Fluctuations in U.S. Voting Behavi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131-143.
- Kuklinski, James. H. and Darrell. M. West. 1981. "Economic Expectations and Voting Behavior in United States Senate and House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 436-447.
- Lanoue, David J. 1994.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oting in Presidential-Year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7, 193-205.

- Lazarsfeld, Paul, Bernard Berelson, and Helen Gaudet. 1948.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wis, E. G. 1943. *British By-Elections as a Reflection of Public Opin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Political Science.
- Lewis-Beck, Michael S. 1988. *Economics and Elections: The Major Western Democracies*. Michigan: Michigan University Press.
- Lewis-Beck, Michael S. and Tom W. Rice. 1984. "Forecasting U.S. Hous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9, 475-486.
- Lewis-Beck, Michael S. and Tom W. Rice. 1982. "Presidential Popularity and Presidential Vote." *Public Opinion Quarterly* 46, 534-537.
- Liao, Tim Futing. 1994. *Interpreting Probability Models: Logit, Probit, and Other Generalized Linear Models*. Thousands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Lockerbie, Brad. 1991. "Prospective Economic Voting in U.S. House Elections, 1956-1988."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6, 239-261.
- MacKuen, Michael B. 1983. "Political Drama, Economic Conditions, and the Dynamics of Presidential Popular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 165-192.
- Markus, Gregory B. 1988. "Impact of Personal and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on the Presidential Vote: A Pooled Cross-Section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135-154.
- Mooney, Christopher Z. and Robert D. Duval. 1993. *Bootstrapping: A Nonparametric Approach to Statistical Inference*.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 Mueller, John E. 1970. "Presidential Popularity from Truman to Johns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18-34.
- Mughan, Anthony. 1988. "On the By-Election Vote of Governments in Britai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3, 29-48.
- Mughan, Anthony. 1986. "Toward a Political of Government Vote Losses in Midterm By-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761-775.
- Nadeau, Richard and Michael S. Lewis-Beck. 2001. "National Economic Voting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63, 159-181.
- Nordhaus, William D. 1975.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 169-190.
- Norris, Pippa. 1990. *British By-Elections: The Volatile Elector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rpoth, Helmut. 1984. "Economics, Politics, and the Cycle of Presidential Popularity." *Political Behavior* 6, 253-273.
- Ostrom, Charles W. and Dennis M. Simon. 1985. "Promise and Performance: A Dynamic Model of Presidential Popula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 334-358.

- Pedersen, Mogens N. 1979. "The Dynamics of European Party Systems: Changing Patterns of Electoral Volatilit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7, 1-26.
- Pierson, James. 1975. "Presidential Popularity and Midterm Voting at Different Electoral Lev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 683-694.
- Pollock, James K. 1941. "British By-Elections Between the Wa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5, 607-619.
- Shapiro, Robert Y. and Bruce M. Conforto. 1980. "Presidential Performance, the Economy, and the Public's Evaluation of Economic Conditions." *Journal of Politics* 42, 49-67.
- Sigelman, Lee. and Kathleen Knight. 1985. "Expectation/Disillusion and Presidential Popularity: The Reagan Experi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9, 209-213.
- Sigelman, Lee. and Kathleen Knight. 1983. "Why Does Presidential Popularity Decline?: A Test of the Expectation/Disillusion Theory." *Public Opinion Quarterly* 47, 310-324.
- Sparks, John C. 1940. "British By-Elections: What Do They Prov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4, 97-104.
- Stimson, James A. 1976. "Public Support for American Presidents: A Cyclical Model." *Public Opinion Quarterly* 40, 1-21.
- Stray, Stephanie and Mick Silver. 1983. "Government Popularity, By-Elections and Cycles." *Parliamentary Affairs* 36, 49-55.
- Studlar, Donley T. and Lee Sigelman. 1987. "Special Elections: A Comparative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 247-256.
- Tufte, Edward R. 1978.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ufte, Edward R. 1975. "Determinants of the Outcomes of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 812-826.
- Waterman, Richard W., Hank C. Jenkins-Smith, and Carl L. Silva. 1999. "The Expectations Gap Thesis: Attitudes toward and Incumbent President." *Journal of Politics* 61, 944-966.

※ 부록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현황: 14대 국회~17대 국회

작성일: 2005년 12월 31일

의회	대통령	선거일	선거구	당선자(정당)
14대	김영삼	1993. 4. 23	부산 동래(甲)*	강경식(민자당)
			부산 사하*	박종웅(민자당)
			경기 광명*	손학규(민자당)
		1993. 6. 11	강원 명주·양양	최옥철(민주당)
			강원 철원·화천*	이용삼(민자당)
			경북 예천*	반형식(민자당)
		1993. 8. 12	대구 동(乙)	서훈(무소속)
			강원 춘천*	유종수(민자당)
		1994. 8. 2	대구 수성(甲)	현경자(신민당)
			강원 영월·평창*	김기수(민자당)
			경북 경주	이상두(민주당)
15대		1997. 3. 5	인천 서	조한천(국민회의)
			경기 수원 장안	이태섭(자민련)
		1997. 7. 24	경북 포항 북	박태준(무소속)
			충남 예산*	오장섭(신한국당)
		1997. 9. 4	경기 안양 만안	김일주(자민련)
		1998. 1. 6	광주 동	이영일(국민회의)-여당 후보 안념
	김대중	1998. 4. 2	부산 서	정문화(한나라당)
			대구 달성	박근혜(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	신영국(한나라당)
			경북 의성	정창화(한나라당)
		1998. 7. 21	서울 종로*	노무현(국민회의)
			서울 서초(甲)	박원홍(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기장(乙)*	김동주(자민련)
			대구 북(甲)	박승국(한나라당)
			경기 수원 팔달	남경필(한나라당)
			경기 광명(乙)*	조세형(국민회의)
			강원 강릉(乙)	조순(한나라당)-여당 후보 안념
		1999. 3. 30	서울 구로(乙)*	한광옥(국민회의)
			경기 시흥*	김의재(자민련)
		1999. 6. 3	서울 송파(甲)	이회창(한나라당)
			인천 계양·강화(甲)	안상수(한나라당)

의회	대통령	선거일	선거구	당선자(정당)	
16대	김대중	2001. 10. 25	서울 동대문(乙)	홍준표(한나라당)	
			서울 구로(乙)	이승철(한나라당)	
			강원 강릉	최돈웅(한나라당)	
		2002. 8. 8	서울 종로	박진(한나라당)	
			서울 금천	이우재(한나라당)	
			서울 영등포(乙)	권영세(한나라당)	
			부산 부산진(甲)	김병호(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기장(甲)	서병수(한나라당)	
			인천 서·강화(乙)	이경재(한나라당)	
			광주 북(甲)*	김상현(민주당)	
			경기 광명	전재회(한나라당)	
			경기 하남	김황식(한나라당)	
			경기 안성	이해구(한나라당)	
			전북 군산*	강봉균(민주당)	
			경남 마산 합포	김정부(한나라당)	
			제주 북제주	양정규(한나라당)	
			2002. 12. 19	울산 중	정갑윤(한나라당)-여당 후보 안념
			노무현	2003. 4. 24	서울 양천(乙)
		경기 의정부			홍문중(한나라당)
	경기 고양 덕양(甲)	유시민(개혁당)-여당 후보 안념			
2005. 4. 30	경기 성남 중원	신상진(한나라당)			
	경기 포천·연천	고조홍(한나라당)			
	충남 공주·연기	정진석(무소속)			
	충남 아산	이진구(한나라당)			
	경북 영천	정희수(한나라당)			
	경남 김해(甲)	김정권(한나라당)			
	2005. 10. 26	대구 동(乙)	유승민(한나라당)		
울산 북		윤두환(한나라당)			
경기 부천 원미(甲)		임해규(한나라당)			
경기 광주		정진섭(한나라당)			
17대	노무현				

1. *: 여당이 승리한 선거구

2. 여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부록 2

기술통계

변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여당 후보자 당락 여부	58	0	1	0.24	0.43
대통령 지지율	58	16.80	82.35	53.36	20.52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58	34.20	56.20	47.67	7.84
선거구 특성	58	1	3	1.84	0.52
선거상황	58	1	3	2.16	0.56
투표율 차이	58	3.80	36.80	19.81	8.32

1. 여당 후보자 당락 여부: 0=낙선, 1=당선
2.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소비자태도지수
3. 선거구 특성: 1=여당 불리 비경합적 선거구, 2=여야 경합적 선거구, 3=여당 유리 비경합적 선거구
4. 선거상황: 1=야당 선거공조, 2=여야 선거공조 안함, 3=여당 선거공조
5. 투표율 차이: 총선 투표율 - 재·보궐선거 투표율

calculus of voting as well as the difference of pre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arties. In addition, under the multiparty system, the B term should be transformed to the difference of preference between two competing parties rather than pre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arties. The Korean electoral system provides a good empirical case which use jointly the single member district and plurality with the proportional system. From the analysis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is paper finds supporting evidences for theoretical arguments posited above.

Key words: Electoral participation, formal model,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electoral system, party system.

What Determines the Outcomes of National Assembly By(Re)-Elections in South Korea?

Jinman Cho • Jun Young Choi • Sangjoon Ka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outcomes of National Assembly by(re)-elections held since democratization in Korea. Taking into account that there have been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interpretation of by-election outcomes, depending upon the models adopted by scholars concerned, the mid-term evaluation(referendum) model, the campaign-specific model, the turnout model, we are proposing a comprehensive model in which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evaluations on economic conditions, characteristics of electoral districts, the presence of coalition between parties, and differences in turnout rates serve as independent variables. At the same time, we are trying to find out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on the outcomes of by(re)-elections. Likewise, based on the statistical results of our logistic model, we are calculating the probabilities that candidates of the ruling party win the by(re)-elections. In addition, we try to infer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by(re)-elections from the points of the statistical results.

The study shows that such factors as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and characteristics of electoral districts play important roles in the outcomes of by(re)-elections in Korea. It means that the higher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are, the higher chances there will be for the ruling party's candidates to be elected controlling other variable constant. Likewise, when by(re)-elections are taken place in the electoral districts favoring ruling party in terms of electoral marginality and regionalism, the likelihood that candidates of ruling party win in by(re)-elections increases keeping other variables constant. The

fact that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determine the winning of ruling party's candidates indicates that the outcomes of by(re)-elections in Korea can be regarded as a political index representing general public opinion on the state of national affairs.

Key words: Korea, By(Re)-Elections,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Regionalism, Mid-Term Evaluation(Referendum)

Measuring Compactness of Electoral Districts for the 17th National Assembly with GIS

Hwi-Won Kang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measures for calculating the degree of compactness which became availabl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GIS, to develop the indices for evaluating it, and then to empirically calculate the degree of compactness of electoral districts. First it examines the concepts and importance of compactness, and the trends in judicial suits and scholarly studies abroad as well as relation to domestic issues. Second, it discusses the types and selection of compactness measures, and then investigates the methods and the subjects of analysis for measuring the degree of compactness of electoral districts. Third, it measures compactness indices of electoral districts for the 17th National Assembly using GIS, which show the order of those districts in perimeter measures and dispersion measures. Fourth, it discusses the political and techn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alyzed.

There are at least two components of geographic dispersion and perimeter length and arguably a third (adding population dispersion) to any satisfactory measures of compactness. Neither is adequate to give a proper assessment of compactness and thus it is multidimensional. After using a perimeter measure and a dispersion measu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reveal several problems of redistricting in terms of compactness in Korea. Thus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initiate democratic procedures that reveal electronic files or GIS redistricting maps to the public and obtain their opinion, so that the authorities can use the feedback results in determining the redistricting plan.

Key words: redistricting, compactness, perimeter measures, dispersion measures, GIS